

새로운 20년 도약...국악으로 열린 공간 만든다

CULTURE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2025년 국립남도국악원 주요 사업 계획

‘토요상설’·‘굿음악축제’ 대표 콘텐츠 규모 확대 복지시설 문화 향유 제공...해외동포 초청연수도

개원 21주년을 맞은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새롭게 단장한 상설공연, 규모를 확대한 ‘굿음악축제’, 학술연구 및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먼저 대표 공연 콘텐츠인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는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를 확대해 총 20회 진행한다. 주 공연장인 대극장 진악당 공사를 마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진도 삼례(김대례 조공례 채정례)로 불리는 예술인들의 탄생주기를 기념한 특별 기획공연과 더불어 여성국극 ‘선화공주’, 정동예술극장 ‘소춘대유회’ 초청 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품격있는 공연은 물론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외부 단체 6팀의 무대, 미래의 명인

을 만나볼 수 있는 ‘차세대 명인전’ 등도 다채롭게 꾸며진다.

새롭게 신설된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평일 저녁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악과 인문학을 접목한 토크 콘서트로, 민요, 굿, 전통춤, 전래동요, 창작음악과 국악기, 전통 음악 등 여러 주제의 강연과 관련 공연을 선보인다. 진도읍에 위치한 옥주골 창작소의 정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총 8회 운영한다.

‘굿음악축제’는 토속 문화의 보고인 진도에서 2010년부터 열고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는 행사가 진도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내용을 확장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전통문화로서 굿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한국무속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해외 무속 단체를 초청해 국내에 소개할 계획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이 2025년 ‘토요상설공연’과 ‘굿음악축제’, 학술연구 및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는 일본과 베트남의 무속을 만나본다. 공연과 함께 현지 무속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대담 시간도 마련된다. 굿음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학술회의는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굿과 음악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 무속으로는 남해안오구굿을 초청해 무안참사를 추모하고 6월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또 굿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국내 공연팀의 버스킹 공연과 진도 지역 문화예술을 제

현해보는 부대 행사, 진도의 손맛이 담긴 먹거리 부스 및 진도 특산물 시식·판매 코너 등이 꾸며진다.

전남도 무형유산을 담은 총서 및 음반 발간도 추진한다. 2025년 국립남도국악원 총서와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 ‘진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 아래 진도 토박이들의 생활문화와 예술을 구술채록 및 디지털음반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 전남도 무형유산 ‘조도뫼베노래’ 보유자인 조오환 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점차 대상과 지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맞춤형 국악 공연 ‘찾아가는 국악원’은 올해 10곳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국악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립국악원에서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 배우기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악동행’ 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은 광주·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2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사업으로 매해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운영 중인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는 올해 11개국 27개 단체 329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국악원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예술을 배우고 익혀갈 예정이다. 20명 이상의 학교, 국악동호회 등 단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연수’도 3월부터 운영된다.

이밖에 ‘청년교육단원’은 꿈을 향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악예술 단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모집된 총 20명의 청년 예술가가 지난 11일부터 출근해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12월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교육 성과를 토대로 발표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곡예와 합창 어우러진 경이로운 서커스

ACC재단. 5월 2~4일 개관 10주년 기념 ‘더 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호주의 현대 서커스 ‘더 펄스’ (The Pulse)를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ACC 초이스’는 매년 국내외 우수 작품을 초청해 선보이는 ACC재단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로 꾸며질 ‘더 펄스’는 호주 현대 서커스 단체 ‘그라비티 앤드 아더 미스’의 대표작으로, 2021년 초연 당시 국제서커스어워즈에서 최우수상과 제작상 등 3관왕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라스트라다 그라츠 등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현대 서커스의 새로

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펄스’는 헬프먼 어워드 수상자인 연출가 다시 그랜트의 혁신적인 군무와 무대 디자이너 제프 코밤의 생명력 넘치는 조명 디자인, 작곡가 에크렐 엘리 피니스의 강력한 음악이 어우러져 인간의 몸과 소리가 이루는 유기적인 조화를 돋보이게 한다.

18명의 곡예사와 25명의 합창단이 함께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 낸다. 곡예사들은 몸을 이용해 인간 계단이나 거대한 탑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고, 합창단들은 노래로 곡예를 지지하거나 목소리로 긴장감을 조성해 공연 내내 관객의 심장을 뛰게 한다.

특히 전당 극장1의 특성인 14m 높이의 블랙박스 무대를 활용한 곡예는 압도적인 규모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사장은 “202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세계적인 현대 서커스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우수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 펄스’는 5월 2일 오후 7시 30분, 5월 3일과 4일 각각 오후 3시에 공연한다. 관람권 예매는 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ACC 초이스’는 올해 ‘더 펄스’ (The Pulse)를 시작으로 6월 스코틀랜드 극단의 다윈 연극 ‘컨서너드 어더스’ (Concerned Others), 7월 창작발레 ‘더 라인 오브 옵세션_몬드리안’, 8월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세종솔로이스츠의 ‘기메라의 시대’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



봄 길목서 만나는 ‘옛 조각보의 멋’

밤상보·이불보 등...내일부터 광주비움박물관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처럼 화려한 조각보들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 봄의 기운을 깨울 조각보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조각보 전시 전경

광주비움박물관은 ‘한반도의 봄 엄마의 말씨 솜씨 마음씨’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14일 개막, 4월 30일까지 1층 기획전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옛날 어머니들이 가족의 옷을 짓고 남는 가지각색의 천을 모아 만든 밤상보와 가리개, 이불보 등 봄꽃처럼 화려한 조각보들을 출품, 선보인다.

옛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작품을 키우며,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염색까지 마친 뒤 가족들의 옷을 바느질했다. 힘들게 가족들의 옷을 다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들이 남는데 이 천 조각들은 크기가, 모양 색깔이 모두 제각각이

지만 천 조각을 모아 밤상보 등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용품들로 탈바꿈시킨 것이 어머니의 비정사적인 분열이 멈추고 과거 선조들의 삶의 모습에서 시대정신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 당일인 14일은 전 전시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